

2012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52

요한계시록에서

(1)

예수님의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

성경: 계 1:1-2, 5, 9-12, 7:9-17, 19:10

- I.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 곧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이다. 그분께서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것이 증언하시는 것이다—계 1:5, 3:14.
- A.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인, 곧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와 표현이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의 재생산이다—1:5.
- B.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증거인 증언하는 교회를 제시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거이시며,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 곧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확장된 그리스도이다—요 1:18, 5:31-37, 8:14, 계 1:2, 5, 9, 19:10, 비교 창 1:26.
- II. 예수님의 증거는 일곱 금등잔대—본성은 금이고(신성하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며, 서로 동일한—이다—계 1:1-2, 9-12.
- A. 금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실질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체현이신 아들은 그 영을 통해 표현되시고, 그 영은 교회들로서 완전히 실재화되고 표현되시며, 교회들이 예수님의 증거이다—계 25:31-40, 숙 4:2-10, 계 1:10-12.
- B. 예수님의 증거, 곧 예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행 9:4-5, 고전 12:12) 금등잔대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름으로(고전 12:13, 롬 10:12-13, 애 3:55-56) 예수님의 영(행 16:7)으로 충만하여 형제로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계 1:9-10) 예수님의 낙인을 지녀야(갈 6:17) 한다.
- C. 금을 쳐서 대(stand)의 모습을 만드는 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금등잔대를 쳐서 만들기 위한 것이다—출 25:31, 골 1:24.
1.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고정하며 그 영의 내적인 일하심과 외적인 환경에 굴복한다면, 모든 상황은 우리가 그분을 아는 기회가 될 것이다—호 6:1-3, 빌 3:10 상, 엡 6:20, 비교 창 41:42.
  2. 사람이 자기 생애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삶 전체를 낭비한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분의 다루심을 받아들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기 바란다—고후 4:16-18, 12:7-9, 비교 사 7:14-15, 고후 5:14-15.
  3.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이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큰 빛이신 주님을 만났는가의 여부에 있다. 고난은 우리가 고난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1:8-9, 비교 1:17, 눅 1:78-79.
- D. 금등잔대들이 비추는 것은 사람들이 등잔대 사이에 다니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으로서 교회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게 된다.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나시며,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계 1:12-18, 2:1, 17 하-18, 딤후 4:22, 히 7:25, 9:24, 민 6:22-27, 신 31:6.

E. 금등잔대의 일곱 등불이 빛을 비추는 것, 주 예수님께서 불꽃과 같은 일곱 눈으로 그 사이에 다니시는 것, 그분의 발이 빛나는 돛쇠 같은 것,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비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복원하시고 부흥시키시고 신화하시는 그분의 목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비추심이 날마다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계 1:14 하-15 상, 16 하, 4:5, 5:6, 눅 1:78-79, 고후 4:6-7, 말 4:2, 잠 4:18, 시 22 와 제목, 80:1-3, 7, 15-19.

1. 빛은 하나님의 말씀—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그 영께서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곧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롭게 계시하는 말씀—안에 있다—계 2:7 상, 시 119:105, 130, 요 6:63, 엡 5:26-27, 아 8:13-14, 사 66:2, 5.
2. 빛 비춤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긍휼을 허락하실 때 그분의 얼굴빛은 우리의 빛이고, 그분의 나타나심은 우리의 이상이며,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유익이다—롬 9:15, 행 9:3-4, 사 50:10-11, 민 6:25-26.
3.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비추심을 원하며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의 모든 갈망을 다하여 주님만 추구하는 데 단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한다—시 139:23-24, 빌 2:12-16, 대하 12:14, 16:12, 34:1-3, 시 27:8, 73:25, 눅 11:33-36.
4.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돌이키며, 아무 것도 보류하거나 숨기지 말고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두어야 한다. 주님께 자신을 닫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전문가들이다—고후 3:16, 잠 20:27, 마 7:1-5, 눅 6:36-37, 41-42.
5.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멈춰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 사물을 보는 방식, 느낌, 의사, 의견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히 멈춰진 사람은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극도로 단일하고 단순할 수 있다—눅 10:38-42, 요 11:21-28, 사 40:31, 마 5:3, 눅 18:15-17, 사 66:1-2.
6.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빛이나 밖에서 말하는 그 영의 사역자들의 빛과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한다—행 22:10, 아 5:4-6, 고후 10:3-5, 11:2-3, 민 16:1-7, 31-39, 17:1-8, 비교 출 33:11, 14.
7.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빛 속에 살아야 한다—사 2:5, 요일 1:7, 히 9:14, 10:22, 마 5:3, 8, 14, 시 119:105, 계 1:20, 시 36:8-9.

III. 예수님의 증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무리, 하나님이 구속하신 몸 전체이다. 그들은 하늘로 휴거되어 오늘 누릴 수 있는 하늘들의 영역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과 어린양의 목양하심을 누려온 이들이다—계 7:9-17, 엡 1:3, 갈 3:14, 창 12:2, 비교 계 21:3-4, 22:3-5, 사 49:10.

A. 큰 무리는 각 민족과 지파와 백성과 언어에서 어린양의 피로 사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로 구성된다—계 7:9 상, 5:9, 롬 11:25, 행 15:14, 19, 고전 6:19-20.

B. “이 사람들은 대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겉옷을 어린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계 7:14

1. 여기서 대환난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역대로 체험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고통을 가리킨다—요 16:33.
2. 어린양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한 마귀의 모든 비난에 대응하여 그를 이긴다(계 12:11). 우리의 죄와 부정을 위해(슌 13:1, 요 19:34) 열린 피의 샘이신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 피에 뛰어들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죄의 얼룩은 정결케 된다(영어 찬송 1006 장 1 절). “우리는 새로워진 마음으로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보좌에 앉으셨다.”(영어 찬송 1010 장 3 절)
3. 우리의 겉옷을 빨는 것은 어린양의 피로 씻어서 우리의 행위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영역인 생명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준다—요일 1:7, 계 22:14.

C. 큰 무리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서 있다—계 7:9 하.

1.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겪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의미한다. 종려나무는 또한 물을 공급받음으로써 얻은 만족의 표징이다—14 절, 비교 요 12:13, 출 15:27.
  2. 하나님의 성전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주야로 섬김으로 그분을 영원한 장막절로 누리고 종려나무처럼 생명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계 7:15 상, 3:12, 레 23:20, 느 8:15, 시 92:12-13, 요 7:2, 37-39, 롬 1:9, 골 2:19.
  3. 오늘날 시간 안에서의 우리의 봉사는 영원 안에서의 우리의 봉사를 위한 준비이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는 그분 자신을 매일 우리 속으로 분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에게서 나가실 때 그것이 봉사이다—마 25:19-23, 요 7:37-39.
- D.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계 7:16 상.
1. 굶주리거나 목마른 것은 아직 만족되지 않은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이 만족할 것이며 그분을 그들을 만족시키는 생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요 6:35.
  2.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생수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4:13-14, 23-24.
- E. 내리쬐이는 해나 뜨거운 열이 우리를 치지 않을 것이다—계 7:16 하.
1.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양-하나님은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며,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덮으실 것이다—15 하, 고후 12:9.
  2. 하나님의 덮으심 아래 있는 한 종류의 생명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이다—시 36:7-9, 엡 6:17, 시 91:1, 17:8, 57:1, 룻 2:12.
  3. 여호와이시고 또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급하시고 돌보시며 덮으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통치를 위한 왕이시며, 광풍을 피하는 곳과 폭우를 가리우는 곳과 마른 땅의 냇물과 황무지의 큰 바위 그늘 같은 사람이시다—사 32:1-2.
- F.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우리를 목양하시고 우리를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다—계 7:17 상.
1. 목양하는 것은 먹이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의 목양 아래 “내게 부족함이 없다.”—시 23:1.
  2.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개선할 수 없으며, 항상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그분이 체험하신 것으로 양들을 먹이신다—2-6 절, 계 22:1.
- G.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7:17 하.
1. 이 시대에 눈물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담겨지며 그분의 책에 기록된다—히 5:7, 행 20:19, 31, 시 56:8, 비교 말 3:16.
  2. 어린양이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므로 눈물은 씻겨진다—렘 9:1, 2:13, 비교 15:16, 애 3:21-25, 55-56.
  3. 슬픔의 날들과 슬픔의 일들이 계속되지 않을 것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상은 끝나고 있고, 우리는 축복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될 때까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을 마신다—요 4:14 하.